

# 重電機器의 輸出 動向과 展望

Trand and Propect of Heavy  
Electric Machine Export



池 珠 賢

現代重電機(株)社長

## I. 熾烈한 競爭, 複雜한 去來樣相

아침에 出勤을 하여 밤사이 海外支社나 去來先으로부터 接受된 電文을 넘겨보고 있노라면 오늘날 世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重電機器 製造去來의 縮少版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興味롭다.

入札日이 2, 3日後로 迫頭했는데 왜 入札書類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支社要員의 차증서인 Telex로 부터 始作하여 23個社가 參加한 入札에서 우리의 것이 Lowest로 判明 되었다는 흥분조의 報告, 公開入札時 Lowest로 發表해 놓고도 1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에 와서 價格 NEGO를 다시 하자는 內容이 있는가 하면 合作先에서 現金投資는 않고 現物出資만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本社의 方針을 물어오는 등 가지각색이며, 또 Consulting Engineer가 生疎한 Korea의 Maker 製品은 아무래도 못 믿겠다고 하니 招請便紙를 보내 달라는 內容과 駐在國에서 韓國製品에 對하여 關稅를 10%나 올리고 30%의 逆購買制度를 發表하여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어렵겠다는 등 事緣이 구구하다.

이러한 實文內容은 한마디로 오늘날의 重電機器 製品 輸出이 얼마나 競爭이 熾烈한가를 보여주는 實例들이라고 하겠다.

## II. 輸出品으로서의 重電機器

現在 重電機器 輸出이 우리나라 全体輸出에 占하는 比率은 아직 1%도 채 못되는 微微한 水準이다 그러나 1973年度에 450萬弗에 不過하던 우리나라 重電機 輸出資績이 1982년에 와서는 9397萬弗을 輸出함으로써 무려 20배가 넘는 成長을 記錄하였으며 특히 最近 5年의 年平均 成長率은 45% 라는 놀라운 實績을 보여주고 있어 重電機器가 輸出品으로서 有望株로 浮刻되고 있음을 直感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重電機器 輸出은 아직도 技術的 經驗的인 側面이나 品質, 價格, 事後管理面에서 여러가지 改善되어야 할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기 때문에 世界市場에서 우리의 占有率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問題點들을 하나 하나 克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III. 重電機器製品的의 輸出動向

## 1. 輸出品目的 偏重化 現象

우리나라 重電機器 製品 輸出은 量的膨脹을 거듭해왔으나 重電機器 全般에 걸친 輸出이 아니라 勞働集約적이거나 技術加工度가 弱한 몇가지 品目에 集中되고 있어 아직도 構造的 脆弱點이 크다 하겠다.

即, 손이 많이 가는 小型電動機나 柱上또는 配電用 變壓器, 低壓配電盤類 등이 輸出의 主宗을 이루고 있어 高度의 技術로 高附加價值戰略 등을 推進하고 있는 先進諸國과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는 超高壓 大容量 變壓器나 Shunt Reactor, Packaged Unit Substation 등의 比較的 附加價值가 큰 製品이 相當量 輸出되고 있어 漸次 輸出品目이 多邊化 되고있고, 또한 超高壓遮斷器工場建設 등으로 高技術, 高附加價值 製品生産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것은 매우 鼓舞的인 現象이라 하겠다.

## 2. 海外建設用 電裝品 및 Plant用 電裝品 輸出 增加

우리나라는 世界에서 有數한 建設輸出國으로 年間 數10億弗의 建設輸出을 하여 왔음에도 그동안 國內 重電機器 製品 輸出은 極히 微微하였다.

이는 發注廳(會社)이나 外國 Consulting Engineer 들의 外國有名業體 選好나 技術承認 등의 問題點들이 있었으나 工事を 受注한 國內業體들이 國産品을 忌避한데도 큰 原因이 있었다.

그러나 最近에는 政府의 強力한 勸誘와 國産 重電機器의 品質向上으로 海外建設用 電裝品이나 Plant用 電裝品 輸出이 크게 增加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 分野의 輸出은 아직도 開發餘地가 많은 分野로 外國有數 Consulting 會社나 發注處와의 긴밀한 情報交換이나 弘報活動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 3. 船舶用 電裝品 輸出增加

우리나라는 世界 第2位의 造船受注國으로서 그동안 船用 電裝品은 日本과 歐美를 위시한 先進國 製品이 탑재, 輸出되었으나 近年에 와서는 國産品의 品質向上으로 많은 船舶用 電裝品이 國內에서 生産 供給되고 있다.

특히 船舶用 電裝品 專門製造業體 指定으로 이分

野의 輸出은 더욱 增加될 展望이다.

## 4. 地域의 多邊化 現象

從來의 우리나라 重電機器 輸出은 東南亞, 中東 등 極히 制限된 몇몇 나라에 그쳤으나 最近에는 아프리카, 中南美 등 地理적으로 不利한 遠距離 國家를 포함하여 美國, 캐나다, 濠洲 등 先進國에 까지 그 市場領域을 넓혀가고 있어 韓國重電機器 市場의 底邊이 擴大되어가고 있는 傾向이다.

## IV. 重電機器 輸出市場의 動向

이와같이 우리나라 重電機器 製品의 輸出은 아직도 여러가지 構造的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世界 여러나라에서는 自國産業과 業體의 保護라는 美名 아래 온갖 口實로 他國製品의 輸入에 直接, 間接 制裁를 加하고 있다.

특히 重電機器 輸出市場은 이런 制約이 많은 分野라 하겠다.

### 1. 高率의 Dumping 關稅 攻勢

自國産業 保護 및 貿易秩序確立이라는 理由로 輸出國에 對한 Dumping 調査를 強化하고 Dumping 關稅賦課 또는 預置制度로서 輸出業體에 對한 直接 間接的인 制限措置를 強化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先進國들이 韓國, 台灣, 싱가포르 등 所謂 新興工業國家들을 겨냥한 貿易障壁으로 最近에 크지 論難이 되고 있다.

### 2. Local 業體에 對한 優待制度 強化

外國業體의 進出을 牽制하기 위하여 많은 國家에서 內國業體에게는 入札價格의 15~30%까지 優先權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重電機器 輸出은 競爭이 어려워지고 있는것이 오늘날의 傾向이다.

### 3. Counter Purchase/Offset/Co-Products 制度 實施

外國業體에게 輸出金額에 해당하는 만큼 輸入國의 商品을 사가게 함으로써 輸入과 輸出을 連繫시키는 나라 (Indonesia)가 있는가 하면 濠洲와 같은 나라에서는 輸出金額의 30% 이상을 內國業體 製品을 購買하거나 共同製作토록 하고 있어 重電機

器製品輸出에 큰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 4. 開發途上國에 對한 優待關稅制 撤廢

美國, 濠洲 등 一部 先進國에서는 G. S. P 또는 Developing Country Preference 制를 채택하여 韓國, 台灣 등 開發途上國에게는 關稅 면제 또는 先進國 關稅率보다 10% 정도 稅率을 漸次 撤廢하고 있다.

#### 5. 自國產 製品 使用率 義務化 및 自國業體 를 通한 輸入

특히 사우디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外國業體에게 發注金額의 30%를 自國產製品을 쓰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該當國의 重電機産業이 유지한 段階임에도 불구하고 外國에서 輸入한 配電盤類 또는 그 組立品을 高價로 購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自國內에서 生産되는 變壓器 등은 高價로 販賣하고 있다.

또한 自國內 生産不可能品은 반드시 自國業體를 通하여서만 輸入하도록 함으로써 自國業體에 惠澤을 주고 있어 輸出國인 우리로서는 그만큼 어려움을 加重시키고 있다.

#### 6 信用供與 要請 또는 支拂期限의 長期化

最近 施行되는 重電機器 入札은 財源이 確保된 일부 Project를 除外하고는 大部分 各種 Credit 提供을 要請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重電機器 輸出은 製品自體의 輸出條件에다 좋은 Credit를 提供하여야 하는 二重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많은 購買業體들이 支拂期限을 納品, 設置後로 定하는 등 支拂期日이 長期化하는 傾向이 있다.

### V. 重電機器 輸出展望과 對策

1981年度 日本의 重電機器 輸出實績이 1,092,221 百萬圓에 달하여 (昭和56年9 重電機器, 日本電機工業會) 우리의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重電機器 輸出市場이 그만큼 크고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重電機器는 需要가 큰 反面에 그에 相應한 先進國 有數業體들이 鼎立하고 있어 後發 韓國業體로서

는 그만큼 輸出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를 賢明하게 對處하면 계속 成長 할 수 있는 分野라고 確信한다.

重電機器 輸出을 위하여는 技術水準向上이나 技能人力을 確保, 철저한 品質管理 및 原價管理 등의 一般的인 振興策을 접어두더라도 다음 몇가지 問題點에 對한 改善方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첫째, 各種 輸出制約事項에 對한 對處方案 講究.

Dumping 關稅를 賦課하거나 逆購買制度나 一定率의 國產品 使用을 義務化하는 國家에의 輸出時에는 國家의인 次元에서 該當國과의 무역교섭을 통하여 이를 해소, 完化토록 努力하는 一方 該當國에서의 逆購買品目에 對한 方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輸入國이 貿易抵抗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 製品의 輸出效果를 노릴 수 있는 現地業體와의 合作法人 設立이나 現地出資 등 多樣한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信用供與制度 및 財源確保

購買者가 要求하는 Credit를 좋은 條件으로 提示할 수 있는 長期延拂資金의 確保는 重電機器 輸出에 있어서도 긴급한 課題의 하나라고 하겠다.

셋째, 基礎部品 및 主要部品の 國產化促進 및 品質向上

이는 輸出品의 品質向上과 原價管理上 絶對적으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事項으로 輸出競爭力 向上과 가격을 提高와도 연결되는 문제라 하겠다.

넷째, 輸出 政策品目 選定 및 集中支援

重電機器 製品 輸出도 종래와 같은 勞動集約的인 品目에 偏重할 것이 아니라 國家的 次元에서 가격이 높고 技術集約的인 品目を 選定하여 集中的으로 支援, 育成함이 必要할 것 같다.

종래의 勞動集約的인 製品技術은 後發開發途上國에 傳受하고 우리는 새로운 技術製品을 開發하여 輸出에 盡力함이 受當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先進國이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P & D活動에 相當한 投資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輸入國 産業現況 및 政策과의 調和 貿易은 結局 第三國의 去來이므로 輸入國의 諸般 條件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